

전주시의회, 올 의정활동 마무리

정례회 폐회... 내년도 1조6641억 예산안 의결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
축구 건의안도 채택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20일 제355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8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고 의회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주시의회 제공>

전주시의회가 20일 제355회 제2차 정례회를 끝으로 2018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일반회계 1조4,528억 원, 특별회계 2,113억 원, 총 1조6,64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올해 임시회, 정례회 등 9차례 회의에서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처리하고 17건의 시정질문과 56건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정의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전주시의회는 국기원 전북 전주 이전 축구를 위한 건의안, 기금융분부 늘리기 즉각 중단 촉구 성명서, SSBT 연기금특화 전주사무소 개설 환영 성명서, 국가균형발전 전을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

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병술 의장은 폐회식에서 "올 해 선진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

한 만큼 새해에는 욕망을 잘라 줄로 같이 빛을 내는 철차타(切差塔)의 마음으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

미를 실현하고 지역 성장을 선도하는 전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교통영향평가 ‘사후평가제’ 실시해야” | 박윤정 시의원, 5분발언에서 촉구 “대규모 시설 사전 이뤄지면 환경에 악영향”

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시설 사업승인 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후평가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윤정 전주시의회(비례대표) 의원은 20일 시의회 제355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시설은 사업승인 전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 여러 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있는데, 개발사업이 완료 되어 주민이 입주하고 나면 사전에



이후인 영향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환경에 악영향을 주고, 주변교통은 삼한 정체를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주요 음식점 인근이나 대규모 시설 주변은 주말마다 정체가 지속되고, 업체는 사업허가만 끝나면 나 몰라라 한다. 예를 들어, 에코시티는 단지내 도로를 비롯 주변 인접도로까지 주요 시간 대마다 교통대란이 일고 있다. 5블럭 입주아파트의 경우 교차로에서 정문으로 진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의 부출입구로 이루어 지도 록 해 불법유턴차량과 교차로 좌회전 차량, 그리고 보행자가 얽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에코시티 5블럭 공동주택에

대한 영향평가에서 차량의 진출입이 매우 불편할 뿐더러 주변에 정체를 유발하는 현재의 진출입방식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것은 결국 교통영향평가의 예측과 평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의 수요를 예측하고 검토·분석 하여 교통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 시행, 즉 대규모 건축물 신축, 대량의 교통수요 유발 사업에 앞서 시행되는 제도다. 교통수요 예측은 정확해야 하며 그 검토·분석 역시 매우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비롯한 영향평가는 반

드시 사후평가를 받는 제도가 만들어야 한다. 교통영향평가가 취지와 달리 개발사업자의 사업승인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환경영향 등 사후평가제는 아직 법령에 의해 강제되지 않고 인허가를 위한 절차적 요식행위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확한 예측과 평가를 위해서는 사후 평가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며, “전주시는 법령제정보다 먼저 조례를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정확한 예측과 분석으로 신뢰도 높은 영향평가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교통영향평가의 사후평가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송효철 기자

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살해 주범 2명 ‘중형’

재판부, 각각 징역 18년·15년 선고... “피해자 사망 후 암매장한 죄질이 매우 무거워”

군산에서 발생한 원룸 동거녀 폭행·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에 대해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20일 상해치사·사체유기·오욕(汚辱) 등 혐의로 기소된 A모씨(23)와 B모씨(22)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했다. 시신유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C모씨(26)에게는 징역 4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D모씨(23)와 E모씨(23)에게는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9시경 군산시 소룡동의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인 F모씨(23)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

소됐다. 이들은 F모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C모씨 등 3명은 A모씨 등과 함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지난 3월부터 원룸에 함께 살았다. 직업이 없던 F모씨가 집안 살림을 맡았다. A모씨 등은 집안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F모씨를 수시로 폭행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인해 F모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km 가량 떨어진 군산의 한 야산에 시신

을 유기했다. A모씨 등은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F모씨가 매장된 야산에 수차례 방문해 토사 유실 여부를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지난 6월 말 폭우로 매장지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다시 매장하고,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면서 “구호 조치도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신을 매장하고 오욕까지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강석훈 기자

군산 현금 훔친 피의자 검거

은행 ATM기에서 현금 10만원을 절취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모씨(40)는 지난 14일 오후 1시경 군산시 Y로 농협지점 ATM기에서 피해자 B모씨(70)가 두고 간 현금 10만 원을 절취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지난 19일 오후 7시경 피의자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

사망사고 낸 뺑소니 운전

60대 3시간 만에 붙잡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혐의로 피의자 황모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황모씨는 지난 19일 오전 5시 31분경 군산시 산북동의 한 도로에서 교회를 가기 위해 횡단하던 피해자 A모씨(78)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모씨는 사고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 중 끝내 숨졌다. 경찰은 현장에 떨어져 있던 백미러 조각 등을 단서로 용의차량을 특정했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도주한 황모씨를 범행 3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 황모씨는 “무언가 차에 부딪힌 것 같기는 했는데 사람인 줄 몰랐다. 나 무도막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청 교통조사대는 “뺑소니 교통사고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을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강석훈 기자

전통문화관광 자원화사업 선정

전주여행 프로그램, 4년 연속 지정... 시 국비 5000만원 확보

전주여행 프로그램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전통문화관광 자원화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지역전통문화관광자원화사업에 전주지역 유네스코 자원을 활용한 여행상품인 ‘유네스코 창의도시 전주여행 프로그램’이 2018년 우수평가가를 받아 4년 연속 선정돼 내년도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전통문화체험관광프로그램은 지역인물과 역사, 예술, 전통문화를 대상으로 지난 2016년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통해 선정해 대한민국 대표 여행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전통문화를 활용한 체험형 여행상품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여행하고 홍보하는 사업이다.

획 없이 떠나는 그대만의 행운상품(체험쿠폰북)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내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전주한옥마을과 원도심(전주부성 옛길)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전통문화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통역 해설 투어를 결합한 FIT(개별자유여행)을 위한 전통문화체험 전주여행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가 제출한 전통문화체험관광프로그램 사업이 4년 연속으로 공모에 선정된 것은 지역전통문화와 유네스코 자원을 활용한 여행상품구성과 FIT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다양한 관광마케팅 활동이 가져온 성과”라며 “내년에도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위해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속적인 관광홍보마케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이를 위해 시는 △전주를 만나는 쉬운 여행법(한지, 공예, 공연, 해설 통합 상품) △기차타고 떠나는 자유로운 실속여행(KTX 연계상품) △계



“해외 동포에게 책을 전달해요” 해외동포와 하나되는 사랑의 책 보내기 도서기증 전달식이 20일 전북 전주시의회 로비에서 실시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이 손석우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이사장 및 관계자들에게 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행정용 저단형계시대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전주시, 내년 1월부터 운영
육교 현수막 게시방법도 개선

전주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행정용 저단형계시대를 운영키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저단형 행정용 현수막계시대를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공공목적의 행사 또는 공익을 위한 홍보 현수막의 경우 구간 정식 현수막 게시대에 게시되지 않고 시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등을 이용해 게시되는 경우가 많아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이 있었다. 이에, 시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공공목적 불법현수막 근절이라는 두가지 효과를 위해 차량과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주요 도로변에 저단형 공공용 계시대를 설치했다. 설치된 장소는 전주시청과 백제로면 선북터널 사거리 등 36개소로, 가로 5m, 세로 0.6~1.2m 규격의 1단 또는 2단 규격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특히, 저단형 현수막계시대는 차량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단횡단이 자주 발생하는 곳에 설치돼 이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육교현수막과 가로 등 현수막 게시방법도 개선키로 했다. 시는 민원 소지를 없애기 위해 육교 광고물 법령에 따라 정식세계이파트 육교, 한옥마을 옆 오목대 육교, 삼천육교 등 현판이 설치된 육교에만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하는 한편, 게시주체를 지자체와 공공기관 단체로 정했다. 앞서, 시는 구간 축제와 대규모 행사 시에만 사용한 가로등 현수막 계시대를 문화예술·관광·체육·행사 등과 국가 등의 주요 사적으로 범위를 넓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30일 이내 게시하도록 했다.

또, 민간영역의 상업용 광고의 경우에도 문화예술·관광·행사로 제한하고 게시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축소했으며, 게시구간도 시내 전 구간 500개소에서 20개구간 1,300개소로 축소했다. 인제정 전주식 건축과장은 “올바른 광고문화의 정착과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공목적 및 행정용 현수막은 저단형 계시대와 육교, 가로등 현수막 계시대를 이용하고, 상업용 현수막은 기존 5단형 현수막 지정계시대와 가로등 현수막 계시대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올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최우수’ 선정

지난 상반기에 이어

전주시가 올해 도내 시·군 중 지방세 징수업무를 가장 잘 수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전북도 주관 2018년 하반기 징수실적 평가에서 지난 상반기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국내 경기 침체로 지방세 징수여건이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납부 홍보 및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시 산하 전 세무담당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강력한 징수활동과 체납처분을 확행한 결과 전년 동

기 대비 551억이 증가한 6,295억을 징수했다. 이를 위해, 시는 세무공무원의 전문화에 역점을 두고 선진 세정을 위한 직무교육과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한 다양한 징수기법 등을 발굴했으며, 체납자의 재산·채권 압류와 부동산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현장징수활동을 전개했다. 김상용 전주시 세정과장은 “전주시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은 전주시민의 자발적이고 수준 높은 납세의식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평하고 정확한 부과 및 다양한 납세홍보를 통한 선진 세무행정을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방세 징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수입을 향상시키기 위해 매년 △도세·시군세 징수를 △전년대비 세수신장을 △타시군 번호판 영치 실적 등 6개 항목에 대한 징수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